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주님 공현 대 축일

제36권 6호(다해) 2016년 1월3일

[묵상]



주님의 공현(公顯, Epiphany)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공적으로 드러남'

'삼왕래조(三王來朝)'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과 교회의 보편성,
하느님의 신비가 온 세상, 모든 백성에게
분명하게 알려진 것을 확인하고 기념하는 날.

Balthasar, Casper, Melchior

황금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

유황은 기도와 흠숭의 상징,
그 향기로움을 한 분이신 하느님께만 드린다.
아기 예수가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 그리스도의 신성.

몰약은 죽음과 장례를 연상케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수난을 상징한다.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트레아(4째주) 성소후원회(첫목요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30
금요일	성경공부(구약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에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6: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 꾸리아 3째주 - ● 요셉회 4째주 -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3:0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주임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토요 저녁 미사	(연)
	(생)
주일 낮 미사	(연) 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이현호 요한, 이광진, 고준희 제임스,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 변해경 올리안나, 이우천 스테파노, 김기준 안젤라, 현시영 요셉, 소창영 & 소준주, 김두철 아브라함, 민기남 모니카, 이사범 로벨토, 허동수 루스 & 허정자 레지나, 이종수 마틴, 김성진 스테파노, 이용식 베드로, 석효정 스테파노
	(생) 박브렌트 안토니오 & 박소영 프란체스카 & 박세준 요셉, 박토마스 & 리디아 가정, 정동호 하상 바오로, 유요한, 민석준 토마스 & 민영준 마르코, 박광식 바오로 & 박정희 마리아, 박진수 스테파노 김용 스테파노, 유영균 우르바노 & 유명련 마리아, 김인태 레이몬드, 박경아 요셉피나, 송기분 수산나, 김상근 바오로 & 김여희 마리아나, 반나영 체칠리아, 매피의여왕 Pr., 이형삼 요셉가정, 김지훈 대건안드레아, 문 밍티스타수녀,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Isaiah) 60,1-6

화답송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제 2독서 에페소서(Ephesians) 3,2.3-5-6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복음 마태오(Matthew) 2,1-12

영성체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한국 교회의 역사

2-2. 초기 교회에 대한 박해(1801~1831년)

1801년의 박해 때 배교를 하고 귀양을 살던 정약용도 1811년 이후 교회 재건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은 북경의 주교에게 밀사를 보내어 선교사 파견을 간청하였으며, 로마 교황청에까지 편지를 보내어 그들의 막한 사정을 호소하며, 주교 파견을 간청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교회 재건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으나 천주교에 대한 조정의 박해는 일부 지방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꾸준히 교회 재건 운동을 전개한 결과 조선 교회는 중국인 여항덕(呂恒德: 異名 劉方濟, 파치피코) 신부를 맞아들일 수 있었다. 그는 조선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선교하였다. 그러나 그는 뒷날 프랑스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하게 되자 이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중국으로 귀환하였다.

2-3. 조선교구의 설정

1831년 조선교구가 설정됨으로써 우리나라 교회는 북경교구의 관할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교구가 설정된 것은 조선인 신자들의 꾸준한 청원과 파리 외방 전교회의 응답에 따른 결과였다. 조선인 신자들의 청원을 받은 로마 교황청에서는 조선에 교구를 설정하고자 했고, 파리 외방 전교회에 소속된 브뤼기에르(Brugiere, 1792~1835년) 주교는 조선 선교를 자원하였다. 그는 조선교구 제1대 교구장이 되어 조선에 입국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으나 새로운 사목지를 눈앞에 두고 중국 땅에서 병사하였다. 그리고 그의 뜻을 이은 파리 외방 전교회 선교사들이 1835년 이후 조선에 입국하였다. 조선에 입국한 이들은 신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였으며 조선 교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 결과 신자들의 숫자가 늘어 갔으며, 그들의 신앙도 깊이를 더하게 되었다.

< 계속 >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102	102	102
봉헌	264	254	264
성체	307	304	307
파견	145	146	142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오늘 우리는 이제나저제나 하는 마음으로 여행을 하는 세 사람의 소식을 듣습니다. 가스파르, 멜키오르, 발타사르라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유다의 임금, 모든 사람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을 뵙고 경배한다는 열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겪게 된 여러 가지 위험과 굶주림, 목마름, 외로움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별을 따라온 그들은 그토록 손꼽아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을 뵙고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 다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세 사람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동방 박사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이 놀라운 일이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헤로데와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 역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습니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을 배척할 뿐이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한 줄기 빛이 올바른 방향을 알려줍니다. 세상의 어둠,

삶의 어둠, 마음의 어둠을 거둬내기 위해 오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눈의 비늘, 마음의 비늘을 떼어내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으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심을 믿고 희망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수님께 왔다면, 우리는 세례라는 믿음과 희망의 별을 따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과 성찬의 신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바치는 은총의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웃의 육체적, 영적 굶주림과 목마름에 함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서는 이웃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고 당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구유에 누워계신 아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그분의 계심을 일러주는 별, '시대의 징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신 공현 사건은 오늘도 우리 신앙인의 삶을 통해 계속 되어야합니다.

◆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신부 /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박희자 마리아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박진수 스테파노	장영진 안토니오
제2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박혜경 레나타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복 1,2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신덕레 테레사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순자 비비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하버, 카슨 1,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 오늘 주일(3일, 매달 첫째 주일)은 성전 기금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오늘(1월3일)은 ‘주님 공헌 대축일’입니다.

‘주님 공헌 대축일’은 또 하나의 ‘성탄 대축일’이라고도 합니다. 동방의 세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 것을 기념하는 날로, 이를 통하여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월2일과 8일사이의 주일에 이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 주님 봉헌 축일... 제대초 봉헌과 개인초 신청받습니다.

성탄 후 40일째 되는 날에 지내는 ‘주님 봉헌 축일’(2월2일)은 성모 마리아께서 정결례를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 봉헌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교회는 이날 전통적으로 1년 동안 전례와 가정에서 사용할 초를 축성합니다.

- 초값 : 제대초 \$20, 개인초 \$15 (개당)
- 신청 : 1월 24일(주일) 까지 성물부 또는 사무실
- 축성할 때(봉헌 축일) 개인이 따로 구입한 초를 가져와서 축성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사시간: 2월2일(화)저녁7시30분

◆ 제의 수요일에 사용할 성지 회수

오는 2월10일은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제의 수요일'에는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때 쓰이는 재는 지난해 나눠드린 성지를 태워서 사용합니다.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성지를 1월31일(주일)까지 성당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요셉회 신년모임.

- 1일시 : 2016.1.17(주일)
- 장소 : 강당
- 당일 모임 후 영화관람 있습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 연락처 : 정기은 비오 ☎(310)780-2789

◆ 한국학교 공지사항입니다.

- 1월 3일 부터 정상수업합니다.
- 한국학교 2 학기 등록
기간 : 1월 10일부터 (1월17일 제외)
* 1월 31일까지 등록시 20% 할인혜택 (SAT 반 제외)

◆ 1월 첫목요일 성시간 없습니다.

“새 신자 환영합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월 3일 * 소공동체 : 김밥 (\$4) 컵라면(\$2)
* 주일학교 : 김치볶음밥 계란국
- 1월 10일 * PV3반 : 배추 된장국 (\$3)
* 주일학교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태홍 구자운 금동군 김일선 김종선 김 준 류현옥 민성원 박진수 반정이 소성덕 오세원 유철희 이경태 이숙화 임 순 정광미 주재욱 지경수 최 일 한혁수 송마이클	성전헌금	강태홍 구자운 금동군 김 준 소성덕 오세원 유철희 이숙화 임 순 지경수 한혁수 송마이클
	합계:\$2,980		합계 : \$1,050
주일미사 헌금 :\$2,669 감사헌금\$50(이인석)		성탄절 : \$3,536 구유예물: \$3,601 주보광고: \$240	

남가주 소식

◆고 이태석 요한신부 6주기 추모행사

- 일시 : 2016년 1월 16일(토) 오후 6시
- 장소 :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
2040 Artesia Bl Torrance, ca 90504

- 문의 : (310)617-3110 권 가브리엘라

◆ 성경대학 CD 판매안내

예수회 송봉모 신부의 성경대학 CD로 영적 성장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1학기부터 8학기까지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 문의 : 아그네스 성당사무실(323-731-4433)
업무시간 (수~토)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

E-Mail : stakcc@gmail.com

◆LA 콜롬바의 집에서 인보 성체수도회 수도자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여생을 지내실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 장소 : 248 S. Mariposa Av. L.A. 90004
- 담당: 공 테레사 수녀
☎213-389-7760 / 213-785-1147

◆이나시오 영신수련에 따른 침묵피정(4박5일)

- 일시 : 2016년 2월 10일(수)-14일 (주일)
- 장소 : Prince of Peace Abbey
650 Benet Hill Road
Oceanside, CA 92058
- 지도신부 : 이근상 신부(예수회)
- 참가비 : \$450(독방숙식제공)
- 문의 : 정도로테아 (323)937-2083, 818-321-9505
진글라라 818-317-6022

◆미주 가톨릭 방송 새로운 프로그램 소개

1세, 1.5세, & 2세들을 위한 가톨릭 한국어 & 영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뉴욕 퀸즈성당에 부제님으로 봉사하시는 진명부제님의 혼인법과 조당에 관한 프로그램, '진명부제코너'가 1월 첫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 전경아 세실리아 자매님의 '가톨릭 방송 전경아입니다.' 프로그램이 1월 2째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 지니 자매님의 'Praise and Phrase with Jini Shim' 프로그램이 1월 2째주 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오신제 메히털다 1/12(화) 오후 4시, 성당
	2	장수영 페트릭 781-0787	한창주 요아킴 1/09(토) 오후 6시, 강당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1/15(금) 오후 7시30분, 강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김정삼 크리스티나 490-9662	김충섭 마틴 1/9(토) 오후 6시
	2	윤경옥 실비아 909-557-7490	정남형 알베르토 1/09(토) 오후 5시
	3	박명순 안나 968-7600	김현정 헬레나 1/16(토) 오전 10시 30분, 성당
토런스 남 최옥희 테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박정희 아네스 1/17(주일) 오후 1시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 1/12(화) 오전 11시30분
	3	김유미 사비나 738-5305	이재용 안드레아 994-6762 1/16(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정병옥 율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김병태 요셉 1/18(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1 /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팜스프링 야외모임 1/10(주일)
P. V.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1	남해나 베네딕타 384-3289	고체칠리아 377-6328 1/22(금) 오후 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이정미 아네스 1/18(금) 오후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송인선 안젤라 1/22(금) 오후 7시 성당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1/22(금) 오후 7시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회의

1시

다음주 단체모임

제 단체모임

1시

2016 신년 메시지

“더 나은 희망이 주어져,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느님께 다가갑니다.”
(히브 7,19)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새해에도 새로운 희망을 안고 하느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립니다.

올해는 특히 병인박해 1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박해는 조선조 말기인 1866년(高宗 3년)에 시작되어 1873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순교자의 피로 얼룩진 병인박해는 그 규모와 가혹함, 희생자의 수에 있어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 박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년 전 병인년에는,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하고 목숨을 바쳐 신앙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순교자들은 온전히 하느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도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더 잘 돌보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비로운 하느님 안에서 희망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희망은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사회가 더 정직해지고 믿음과 신뢰가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신앙인들이 솔선수범하여 믿음을 지니고 서로 일치하며 사랑과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들과도 공존하고 친교를 나누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공동체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불행이 행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느님 구원의 은총이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가득히

내리기를 기도드립니다. 복녘의 동포들에게도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리며, 또한 특별히 우리 교구가 시행하고 있는 ‘내 마음의 복녘 본당 갖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성당의 회복을 위해서 매일 기도 중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1월 1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참다운 기도

나를 포함하여 우리 신자들은 대체적으로 하느님께 세속적인 복을 비는 것을 기도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기도를, 오직 내가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는 도구로 여기기 때문에 신앙적 위험에 빠지기가 쉽다고 생각한다.

그런 연유로 하느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 ‘하느님이 정말 있을까?’하고 하느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하고 ‘기도를 해봤자 다 소용없다.’고 하면서 하느님을 멀리하고 점집을 찾는 신자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하느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신자들에게 ‘주님의 기도’와 같은 기도의 표양을 보여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오직 세속에서 필요한 것들만 요구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도를 올리는 경향이 있다.

집을 갖게 해 달라,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게 해 달라, 취직을 시켜달라, 아기를 갖게 해 달라는 등 각자마다 소원하는 것들을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

물론 우리의 간구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잘 들어 주시는 하느님이시만, 청원만 올리는 기도는 올바른 신앙적 자세가 아닌 것 같다. 하느님은 구태여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미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이젠 우리들도 기도의 격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주만물을 지으신 하느님께,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건강한 육체를 주신 것에 대해 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이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총이 얼마나 큰가. 하느님께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은 그 감사함 속에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고, 영적인 평화로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느님을 향한 우리 신자들의 성숙하고 참다운 기도이다. 물론 우리 자신들이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그래도 계속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려 노력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느님 은총 속에서 사는 우리 삶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 이두호요한 / 교구평협 자문위원

거인 골리앗을 이긴 소년 다윗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이 다윗을 아시죠? 그가 소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자 이스라엘의 사울 임금이 군대와 함께 그들에 맞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산마루에 모여 있었고 맞은편에 모여 있는 필리스티아 병사들은 날카로운 철로 만든 창들로 무장하여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 병사들 중 거인 투사 한 명이 나섭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무엇이라 말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무엘 상 17,1-11

골리앗이 소리를 쳐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반응이 없자, 그는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다시 나타난 그는 더욱더 교만해져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돌아갔고, 이런 일이 사십여 일이나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때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간 소년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른 병사들과 대화를 하고있던 다윗의 형은 다윗에게 화를 내며 뭐라고 말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무엘 상 17,12-28

다윗이 한 딸이 사울 임금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어린 다윗을 말립니다. 다윗이 계속 청하자 사울은 허락을 하고,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었지만, 다윗은 무겁다며 갑옷을 벗어 버리고 골리앗과 일전을 벌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무엘 상 17,30-58

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를 죽였습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은 골리앗이 죽은 것을 보고 모두 달아났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영웅으로 선언했고 모든 백성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 후 그는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총 40년 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하느님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켰고, 종교적으로 나라를 단합시켰으며, 그의 통치 기간 중 이스라엘은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골리앗은 방심하여 소년 다윗을 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과 더불어 하느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있었던 것입니다.

괄호 속을 채워보세요!

“오늘 ()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나야말로 너를 쳐서 ()를 떨어뜨리고, 오늘 필리스티아인들 진영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에 계시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하겠다.”(사무엘 상 17,46)

사울이 그에게 “젊은이, 자네는 누구의 아들인가?” 하고 묻자, 다윗이 “저는 ()사람, 임금님의 종 ()의 아들입니다.”하고대답하였다.” (사무엘 상 17,58)

[성인말씀]

무엇이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열성을 다할 때
그 가치는 대단합니다.

-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 -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9:30~11:30(오전)	2:00~7:00(오후)
수	CLOSED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가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001 S. Vermont Ave., #209,
 1-855-388-4141 Los Angeles, CA 90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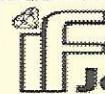
썬사이드 장의사
 www.sunnysidecremation.com FDR #2224
 이민 1세로 열심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며 살아 오신 분들은 품격있는 서비스로 애우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세와 다리역할을하며 영어와 한국어로 새로운 장례문화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감동을 드린 "마이스토리"를 100부 무료로 제공합니다.
 24시간 LA: 213-500-8434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 #422 LA, CA 90006
 ☎(213)480-0911

Kim's Music & Art School
 Piano, Violin, Clarinet, Saxophone, Cello, Flute, Guitar
 창의력 발달 아동 미술, 포트폴리오 준비
 *주말 ROBOTICS & LEGO수업
 www.kimsmusicschool.com
 ☎310-387-5772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홀리 크로스 묘지분양
 합장묘지, 크립트, 납골당
 Jean Kim
 ☎ (213)842-8366
 JJKim@LACatholicCemeteries.org

 **LASER DESIGN**
Jewelry & Design
 625 S. Hill St. Ste 244
 Los Angeles, CA 90014
 213-955-0038 김시문*마리아

이경희(바오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 213-385-4646(imin)
 3435 Wilshire Bl. #1110 LA(에쿼터블)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운동보일러 설치
김천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쟈마-

한 국 장 의 사
 LA(FD74), 놀웁(FD1134)
 (562)868-0788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가 주 장 의 사**
 California Mortuary
정 영 목 목사
 President Yung M. Jung
 Lic. #FDR1124 / CBB6588 / californiamortuary@gmail.com

LA OFFICE (FD2256) (213)568-3025(24hrs) 2717W.Olympic Bl. #204 LA, CA 90010	MAIN OFFICE (FD1648) (562)622-9393(24hrs) Fax (562)622-4843. 9830 Lakewood Bl Downey, CA 90240	South Bay Office (FD2253) (310)817-4337(24hrs) 16229 Western Ave. #8 Gardena, CA 90247
---	--	--

서박사 수학 과외지도
 K-12, SAT ACT 책임지도
 서울대, 아이오와 대학원, 교직경력
 ☎310-627-7204 서해정 마르타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정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Max Cargo Inc.
 International Air/Ocean Freight Forwarder
국제 항공/선박 운송/NVOCC
정충로 안토니오
 (310)323-8100, Fax (310)323-8884
 19825 Hamilton Av.
 Torrance, CA 90502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불란서 안경 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3104 W. Olympic Bl. L.A., CA 90006
 (213) 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교우 특별 봉사)

 **StateFarm**
 Heather Chong (정혜경) Lic#0I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한 스 전 자
 냉장고, 세탁기, TV, 가전제품
TEL: 323-732-7131
 1200 S. Western Av. LA, CA 90006
한 프란치스코

ECONO LUBE N' TUNE
이코노 종합 정비
 타이어 얼라인먼트 스모그 체크 브레이크
310-534-0150 김클라라
2514 SEPULVEDA & CRENSHAW

 **몬테소리 토요영재학교**
U.S JMI KIDS COLLEGE
 평생을 좌우하는 3세~7세 두뇌 발달 몬테소리 토요
 영재학교에 맡기세요 전화 : 213-434-1314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